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 및 또래 변인

Individual Differences, Attitudes toward Risk Behaviors, Parents and
Peers as Correlates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이 지 민
텍사스 텍 대학
교 수 낸 시 벨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Lee, Ji-Min

Dep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exas Tech University

Professor : Nancy Bell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between adolescent risk behaviors and correlates of risk behaviors.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955 high school freshmen in the Daegu · Kyungpook area and included measures of risk behaviors, coping, self-esteem, social competence, attitudes toward risk behaviors, parental attachment, autonomy, parental monitoring, and peers' risk behavior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Parental attachment, autonomy, and appropriate parental monitoring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dolescent coping, self-esteem, social competence, and peers' desirable behaviors, but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eers' risk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 risk behaviors. (2) Of all the variables, peers' risk behaviors and favorable attitudes toward smoking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adolescent drinking and smoking, following by favorable attitudes toward drinking, social competence, and gender. (3) Similar to adolescent drinking and smoking, of all the variables, peers' risk behavio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adolescent delinquency, following by favorable attitudes toward smoking and gender.

주제어(Key Words): 위험행동(risk behaviors), 또래의 위험행동(peers' risk),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risk behaviors)

I. 서론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질적/양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 시기 동안의 폭 넓은 탐색활동과 다양한 경험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있어 필수적이다(Irwin, 1993). 이러한 발달 과정상의 특성으로 청소년기 동안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여러 가지 위험행동이나 감각 추구 행동이 많이 발생한다(오미경, 1997; 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위험행동(risk behaviors)은 약물사용, 비행, 성행동, 오토바이 폭주, 음주운전 등 잠재적으로 위험을 내포하며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행동들을 의미한다(Igra & Irwin, 1996).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위험행동들은 음주와 흡연, 그리고 폭력과 절도 등의 비행행동들이다. 술이나 담배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각층의 다양한 예방과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흡연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시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청소년 보호위원회, 2002). 또한 음주와 흡연은 다른 비행행동으로 가는 출구(gateway)역할을 하므로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의 증가와 저연령화는 여러 비행행동의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위험행동에 개입함으로써 청소년들 자신의 건전한 발달과 미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Compas, Hinden, & Gerhardt, 1995).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어느 하나의 변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변인들의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정자, 2003; Markey, Ericksen, Markey, & Tinsley, 2001).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심리적 특성으로는 주로 청소년의 성별(오미경·박성연, 1998; Mears, Ploeger, & Warr, 1998), 대처능력(Lee & Bell, 2003; Markey et al., 2001), 자아존중감(Benda, 2001; Dielman, Campanelli, Shope, & Butchart, 1987), 그리고 사회적 능력(Allen, Moor, Kuperminc, & Bell, 1998; Chassin, Pittis, & DeLucia, 1999) 등이 연구되어 왔다. 청소년의 성별과 위험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근 여자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 비행에 개입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여전히 더 많이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미경·박성연, 1998; Mears et al., 1998). 그러나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대처능력(coping)이나 자아존중감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대처능력이나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위험행동 사이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대처능력이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위험행동에 더 많이 개입한다고 보고한 반면(심응철, 1992; 이경남·하연미, 2004; Lee & Bell, 2003), 또 다른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이 청소년들의 위험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했다(Dryfoos, 1991). 청소년의 성별과 거주 지역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Benda(2001)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집단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위험행

동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도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ier와 그의 동료들(1999)은 청소년의 높은 사회적 능력이 위험행동의 시작 시기를 늦추는데 효과적인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Allen과 그의 동료들(1990)도 애착과 자율성, 그리고 사회적 능력과 위험행동의 관계를 경로 분석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낮은 사회적 능력은 여러 유형의 위험행동과 관련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Shedler와 Block(1990)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나 흡연을 어느 정도 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이 음주나 흡연을 전혀 하지 않거나 남용하는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Scheier 등(1999)이나 Allen 등(1990)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대처능력,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실제로 개입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연구들은 위험행동에 개입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사결정자로 간주하고 있다 (Small, Silverberg, & Kerns, 1993). 예를 들면, 음주나 흡연에 대해 호의적 혹은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보수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 보다 음주나 흡연을 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Swadi, 1999),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위험행동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행동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태도(허용적 혹은 부정적)를 가지고 있는가는 그들이 실제로 위험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Caetano & Clark, 1999).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는 주로 부모와의 애착, 자율성, 부모의 감독, 그리고 또래 관계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정자, 2003; 오미경, 1997; Bogenschneider, Wu,

Raffaelli, & Tsay, 1998). 발달 심리학자들은 청소년기 동안 부모와의 애착을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과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했다(Collins & Repinski, 1994; Hill & Holmbeck, 1986). 부모와의 애착이나 감독과 청소년의 위험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의 애착이 강하고 부모가 적절하게 감독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위험행동에 개입할 확률이 낮았다(Bahr, Hawks, & Wang, 1993; Markey et al., 2001). 반면, 자율성과 청소년의 위험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자율성의 정의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났다. 자율성이 부모와의 심리적 단절(emotional detachment)로 정의되는 경우는 청소년의 위험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uhrman & Holmbeck, 1995), 자율성이 자립심(self-reliance)으로 정의되는 경우는 위험행동과 부적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et al., 1990; Lee & Bell, 2003).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청소년의 자립심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래 변인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또래의 위험행동은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개입하고 지속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오미경·박성연, 1998; 정윤주·Darling, 2003; Brook, Brook, Gordon, Whiteman, & Cohen, 1990). Chasshin 등(1999)에 의하면 친한 친구가 자주 술을 마시는 경우 청소년의 음주량이 증가하며, 반대로 자신이 자주 음주를 하는 경우 술을 마시는 또래를 친구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y와 그의 동료들(1999)과 Swadi(1999) 등은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 비행등의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 목적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나 또래의 압력 때문에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또래의 수나 그 개입 정도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래의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또래의

바람직한 행동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위에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또래가 많을수록 청소년이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주위에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건전한 생활을 하는 또래들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더 많이 할 것이며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래의 위험행동과 바람직한 행동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모들이 자녀의 또래 관계를 지도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의 위험행동이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류가정의 청소년에게도 보편화되고 있다(고정자, 2003). 이는 청소년의 가정환경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변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 변인으로 고려할 때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또래와의 관계와 동시에 고려할 때 부모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또래관계나 위험행동에 대한 가치관 형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와의 관계, 또래의 위험행동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대처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살펴보았으며,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는 음주, 흡연, 비행 각각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 부모의 감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또래의 위험행동과 또래의 바람직한 행동이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이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보다는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와의 관계, 또래의 위험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와의 관계, 또래의 위험행동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와의 관계, 또래의 위험행동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955명(남학생 464명, 여학생 4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2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총 97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95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의 위험행동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음주와 흡연에 관련되는 4 문항과 비행에 관련되는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Amett & Jensen, 1994; Bell, Schoenrok, & O'Neal, 1999). 음주와 흡연에 관한 문항은 지난 3개월 동안 음주와 흡연에 관련된 행동을 한 빈도로 (1) 없다, (2) 1-2회, (3) 3-9회, 그리고 (4) 10회 이상의 4점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N(백분율)	변인		N(백분율)
성별	남	464(48.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186(19.5)
	여	491(51.4)		고졸	389(40.7)
연령	15세 이하	489(51.2)		전문대졸	49(5.1)
	16세	414(43.4)		대졸	232(24.3)
	17세 이상	44(4.9)		대학원졸	85(8.9)
			중졸이하	246(25.8)	
종교	불교	269(28.2)	어머니 학력	고졸	472(49.4)
	기독교	204(21.4)		전문대졸	32(3.4)
	카톨릭	77(8.1)		대졸	172(18)
	무교	373(39.1)		대학원졸	19(2.0)
	기타	32(3.4)		아버지 직업	전문직
함께사는 부모	친부모 두 분	826(86.5)	관리직		274(28.7)
	친어머니만	42(4.4)	사무직		264(27.6)
	친아버지와 계모	18(1.9)	생산직		226(23.7)
	친어머니와 계부	9(0.9)	무직		47(4.9)
	기타	60(6.3)	어머니 직업	전문직	59(6.2)
합계				관리직	75(7.9)
				사무직	228(23.9)
				생산직	93(9.7)
				무직	480(50.5)

척도로 측정하였다. 비행에 관한 문항은 지난 3개월 동안 비행에 관련된 행동(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 학교 기물이나 공공 기물을 파손했다 등)의 유무를 (1) 없다, (2) 있다고 측정하였다. 각 척도의 Cronbach's α 는 각각 .88과 .75였다.

2)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은 성별, 대처능력,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능력으로 구성하였다. Global Self-Worth(Neumann & Harter, 1986)와 Offer Self-Image (Offer, Ostrove, & Howard, 1982)로 구성된 22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각각 .62, .72, 그리고 .79였다.

3)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또래 청소년의 음주(흡연, 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련된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의 행동에 대해 허용적임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각각 .88, .74, 그리고 .82였다.

4)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는 애착, 자율성(Mayseless & Hai, 1998), 그리고 부모의 감독(Chen & Dornbusch, 1998)으로 측정하였다. 애착(9문항), 자율성(8문항), 그리고 부모의 감독(5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이나 자율성이 높으며 부모의 감독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과 자율성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측정하였다. 애착(아버지, 어머니), 자율성(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감독에 대한 Cronbach's α 는 각각 .96, .97, .75, .79, 그리고 .79였다.

5) 또래의 위험행동

또래의 위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친한 친구들의 행동을 묻는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Bell & Harris, 2000). 요인분석을 통해 또래의 위험행동과 바람직한 행동의 두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또래의 위험행동에 대한 Cronbach's α 는 .71이었으며 두 문항의 바람직한 행동(학교 성적이 좋다,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은 각각 단일문항으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독립변인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변수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평균(표준편차)	변 인	평 균
대처능력	3.01(.64)	아버지와의 자율성	2.88(.69)
자아존중감	3.16(.63)	어머니와의 애착	3.78(.86)
사회적 능력	3.48(.71)	어머니와의 자율성	2.95(.73)
음주에 대한 태도	2.58(1.07)	부모의 감독	3.30(.96)
흡연에 대한 태도	1.54(.80)	또래의 위험행동	1.92(.80)
비행에 대한 태도	1.30(.62)	학교 성적이 좋다	3.02(1.00)
아버지와의 애착	3.19(.93)	건전한 생활 노력	3.75(1.38)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와의 관계, 또래의 위험행동간의 상관관계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검증하고 독립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55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부모와의 애착, 자율성, 그리고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의 대처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 그리고 친구들의 바람직한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에, 또래의 위험행동과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와의 관계, 또래의 위험행동이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델 1에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만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성별,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이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음주 및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적 능력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음주 및 흡연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의 설명력은 4.2%였다.

모델 2에서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첨가한 결과 성별과 사회적 능력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 있었으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위험행동(음주, 흡연, 비행)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음주와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행에 대한 태도는 음주 및 흡연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31.2% 증가하여 35.4%였다.

모델 3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첨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사회적 능력, 위험행동에

<표 3>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00													
2	-.101**	1.00												
3	-.075*	.244**	1.00											
4	.065*	.295**	.362**	1.00										
5	.105**	-.059	-.043	.130**	1.00									
6	-.058	-.061	-.071*	-.006	.473**	1.00								
7	-.032	-.091**	-.056	-.039	.250**	.417**	1.00							
8	.081*	.136**	.289**	.206**	-.075*	-.182**	-.153**	1.00						
9	.055	.124**	.178**	.116**	-.044	-.099**	-.068*	.462**	1.00					
10	.119**	.070*	.317**	.222**	-.042	-.183**	-.111**	.473**	.278**	1.00				
11	.063	.053	.195**	.115**	-.038	-.056	.026	.217**	.489**	.533**	1.00			
12	.183**	.015	.312**	.150**	-.072*	-.186**	-.138**	.316**	.008	.363**	-.022	1.00		
13	-.143**	-.082*	.007	.059	.391**	.407**	.233**	-.106**	-.074*	-.089**	-.022	-.115**	1.00	
14	.095**	-.004	.166**	.116**	.011	-.047	.042	.149**	.088**	.158**	.059	.221**	.000	1.00
15	.187**	-.004	.136**	.048	-.076*	-.138*	-.083*	.156**	.126**	.203**	.089**	.302**	-.192**	.286**

*p<.05 **p<.01 ***p<.001

1: 성별 2: 대처능력 3: 자아존중감 4: 사회적 능력 5: 음주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6: 흡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7: 비행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8: 아버지와의 애착 9: 아버지와의 자율성 10: 어머니와의 애착 11: 어머니와의 자율성 12: 부모의 감독 13: 또래의 위험행동 14: 학교 성적이 좋다 15: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대한 청소년의 태도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만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를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1% 증가하여 36.4%였다.

또래의 위험행동을 첨가한 모델 4에서는 성별, 사회적 능력,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의 영향력, 그리고 아버지와의 애착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다. 또래의 위험행동에서는 위험행동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위에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또래들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 성적이 좋거나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또래들이 주위에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의 위험행동을 첨가함으로써 83%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설명력은 44.7%였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

모와의 관계, 또래의 위험행동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또래의 위험행동과 흡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였으며,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사회적 능력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모든 변인들이 고려될 때, 청소년의 대처능력, 자아존중감, 아버지와의 애착을 제외한 부모와의 애착과 자율성, 부모의 감독과 학교 성적이 좋거나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또래들이 주위에 있는 것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와의 관계, 또래의 위험행동이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표 4〉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	β	B	β	B	β	B	β
개인적 특성	성별	-.211	-.130***	-.201	-.124***	-.186	-.117***	-9.68E-02	-.061*
	AC1	-2.9E-02	-.023	2.40E-02	.019	1.81E-02	.015	5.29E-02	.043
	AC2	-.122	-.094**	-5.2E-02	-.040	-1.4E-02	-.011	-3.4E-02	-.027
	AC3	.216	.191***	.144	.127***	.154	.139***	.133	.120***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ATT1			.194	.256***	.197	.266***	.132	.178***
	ATT2			.425	.417***	.403	.403***	.326	.326***
	ATT3			-7.5E-02	-.057*	-.105	-.082**	-.122	-.096**
부모와의 관계	F-애착					-6.4E-02	-.074*	-6.5E-02	-.076*
	F-자율성					5.68E-02	.049	7.13E-02	.062
	M-애착					-1.6E-02	-.018	-2.5E-03	-.003
	M-자율성					2.06E-02	.019	8.44E-03	.008
	감독					-3.4E-02	-.041	-2.7E-02	-.033
또래의 위험행동	FR1							.332	.331***
	FR2							-7.6E-03	-.010
	FR3							-4.1E-03	-.007
R ² (adjusted R ²)		.042(.038)		.354(.349)		.364(.355)		.447(.437)	
F값		10.528***		73.908***		42.774***		48.128***	

*p<.05 **p<.01 ***p<.001

AC1: 대처능력 AC2: 자아존중감 AC3: 사회적 능력 ATT1: 음주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ATT2: 흡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ATT3: 비행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F-애착: 아버지와의 애착 F-자율성: 아버지와의 자율성 M-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F-자율성: 어머니와의 자율성 감독: 부모의 감독 FR1: 또래의 위험행동 FR2: 학교 성적이 좋다 FR3: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델 1에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만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성별,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 청소년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게 남자 청소년들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이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비행에 더 많이 개입하는 반면, 사회적 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적 능력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비행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의 설명력은 5%였다.

모델 2에서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첨가한 결과 성별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으나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 있었으나 사회적 능력

의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위험행동(음주, 흡연, 비행)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중에서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태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와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청소년들이 비행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8.4% 증가하여 13.4%였다.

모델 3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첨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음주와 흡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으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변인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를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0.1% 증가하여 13.5%였다.

또래의 위험행동을 첨가한 모델 4에서는 성별과

<표 5>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	β	B	β	B	β	B	β
개인적 특성	성별	-9.1E-02	-.213***	-8.7E-02	-.205***	-8.2E-02	-.196***	6.2E-02	-.148***
	AC1	-1.4E-02	-.043	-5.9E-02	-.018	-4.4E-03	-.014	1.18E-03	.004
	AC2	-3.2E-02	-.093**	-2.2E-02	-.066*	-1.6E-02	-.048	-1.8E-02	-.054
	AC3	2.33E-02	.078*	1.51E-02	.051	1.55E-02	.053	1.17E-02	.040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ATT1			2.03E-02	.102**	1.96E-02	.100**	7.53E-03	.039
	ATT2			5.64E-02	.211***	5.31E-02	.201***	3.79E-02	.143***
	ATT3			1.33E-02	.039	8.37E-03	.025	6.35E-03	.019
부모와의 관계	F-애착					-1.5E-02	-.064	-1.5E-02	-.066
	F-자율성					8.87E-03	.029	1.36E-02	.045
	M-애착					8.64E-03	.036	1.26E-02	.052
	M-자율성					7.37E-03	.026	4.80E-03	.017
	감독					-1.1E-02	-.051	-6.2E-03	-.029
또래의 위험행동	FR1							6.09E-02	.230***
	FR2							-6.6E-03	-.032
	FR3							-8.8E-03	-.058
R ² (adjusted R ²)		.050(.046)		.134(.127)		.135(.123)		.182(.168)	
F값		12.448***		20.887***		11.671***		13.267***	

*p<.05 **p<.01 ***p<.001

AC1: 대처능력 AC2: 자아존중감 AC3: 사회적 능력 ATT1: 음주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ATT2: 흡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ATT3: 비행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F-애착: 아버지와의 애착 F-자율성: 아버지와의 자율성 M-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F-자율성: 어머니와의 자율성 감독: 부모의 감독 FR1: 또래의 위험행동 FR2: 학교 성적이 좋다 FR3: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흡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으나 음주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또래의 위험행동에서는 위험행동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4.7%증가하여 총 설명력은 18.2%였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또래의 위험행동이었으며, 흡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성별 순으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변인들의 상대적 영

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주위에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또래들이 많을수록, 음주 및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 높고 남자 청소년일수록 음주 및 흡연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의 위험행동이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정윤주·Darling, 2003; Bahr et al., 1993; Bogenshneider et al., 1998; Brook et al., 1990). 청소년 기에는 부모의 영향이 줄어드는 반면 또래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상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또래의 위험행동이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 성적이 좋거나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등의 또래의 바람직한 행동은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위험행동을 하는 또래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주위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또래의 위험행동 못지않게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의 음주와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음주와 흡연에 대해 더 허용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더 쉽게 음주와 흡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Hawkins et al., 1992). 이러한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주변의 성인들, 특히 부모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부모의 실제 음주나 흡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금주나 금연을 하며 건강한 생활을 하는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능력이 높을수록 음주 및 흡연을 더 많이 개입한다는 결과는 음주나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이나 남용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높다고 한 Shedler과 Block(1990)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최근 음주와 흡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편적이며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혹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음주와 흡연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이 단순히 문제행동만으로 간주되어 중재되기 보다는 발달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여 그 예방과 중재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부모와의 애착, 자율성, 그리고 부모의 감독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만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과 자율성, 그리고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

러 선행 연구결과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Allen et al., 1990; Brook et al., 1990:83).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Bogenschneider등(1998)의 연구에서처럼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또래관계나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또래의 위험행동과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변인의 영향으로 부모와의 애착, 자율성, 그리고 부모의 감독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이 감소되어 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과 유사하게 주위에 비행에 개입하는 청소년들이 많을수록,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리고 남학생일수록 비행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또래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여러 비행에 개입하는데 있어 위험요인(risk factor)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중에서 흡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음주나 비행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보다 청소년의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음주와 흡연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행동에 더 쉽게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흡연예방과 중재교육을 통해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또래의 위험행동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전체 설명력과 비교해 볼 때 비행에 미치는 전체 설명력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이 음주나 흡연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위험행동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변인들 이외에 다른 변인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래의 바람직한 행동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또래의 위험행동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그리고 비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또래와의 교류를 미연에 막는 것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이 청소년의 발달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청소년의 성장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증재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뿐 아니라 면접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하여 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심응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미경(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09-123.

오미경, 박성연(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11-227.

이경남, 하연미(2004). 청소년의 인터넷관련비행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5), 127-143.

정윤주 & Darling, N. (2003). 부모가 정한 규칙에 대한 준수 의무감과 또래의 문제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1(2), 1-11.

청소년 보호위원회(2002). 2002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실태.

Allen, J. P., Aber, J. L., & Leadbeater, B. J. (1990).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influence of attachment and autonomy.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3, 455-467.

Allen, J. P., Moore, C. M., & Kuperminc, G. P. (1995). Development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dolescent deviance.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on adjustment, risk, and disord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rnett, J., & Jensen, L. A. (1994). Socialization and risk behavior in two countries: Denmark and the united States. *Youth and Society*, 26, 3-22.

Bahr, S. J., Hawks, R. D., & Wang, G. (1993). Family and religious influence on adolescent substance abuse. *Youth and Society*, 24, 443-465.

Bell, N. J., & Harris, K. (2000). *How are you doing? A report on LISD drug and violence education programs*. Lubbock, TX: Center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nd Resiliency, Texas Tech University.

Bell, N. J., Schoenrok, C. J., & O'Neal, K. K. (1999). Self-monitoring and the propensity for risk.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107-119.

Benda, B. B. (2001). Conceptual model of assets and risks: Unlawful behavior among Adolescents. *Adolescents and Family Health*, 2, 123-131.

Bogenschnneider, K., Wu, M., Raffaelli, M., & Tsay, J. C. (1998). Parent influences on adolescent peer orientation and substance use: The interface of parenting practices and values. *Child Development*, 69, 1672-1688.

- Boy, A., Marsden, J., Griffiths, P., Fountain, J., Stillwell, G., & Strang, J. (1999). Substance use among young peopl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unctions and intentions. *Addiction, 94*(7), 1043-1050.
- Brook, J. S., Brook, D. W., Gordon, A. S., Whiteman, M., & Cohen, P. (1990). The psychosocial etiology of adolescent drug use: A family interactional approach.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 111-267.
- Caetano, R., & Clark, C. (1999). Trends in situational norms and attitudes toward drinking among whites, blacks, and hispanics: 1984-1995. *Drug and Alcohol Dependence, 54*, 45-56.
- Chassin, L., Pitts, S. C., & DeLucia, C. (1999). The relation of adolescent substance use to young adult autonomy, positive activity involvement, and 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915-932.
- Chen, Z., & Dornbusch, S. M. (1998). Relating aspects of adolescent emotional autonomy to academic achievement and deviant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293-319.
- Collins, W. A., & Repinski, D. J. (1994).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In R. Montemayor, & G. R. Adams (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An annual book series, 6*, 7-36.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s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Dielman, T. E., Campanelli, P. C., Shope, J. T., & Butchart, A. T. (1987).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self-esteem, and health locus of control as correlate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Health Education Quarterly, 14*, 207-221.
- Dryfoos, J. (1991). *Adolescents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Fuhrman, T., & Holmbeck, G. N. (1995). A contextual-moderator analysis of emotional autonomy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793-811.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31-250.
-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1), 64-105.
- Hill, J. P., & Holmbeck, G. N. (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Annals of Child Development, 3*, 145-189.
- Irwin, Jr., C. E. (1993). Adolescence and risk taking: How are they related? In N. J. Bell & R. W. Bell (Eds.), *Adolescent risk taking* (pp. 7-28). Newbury Park, CA: Sage.
- Igra, V., & Irwin, Jr., C. E. (1996). Theories of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 In R. J. DiClemente, W. B. Hansen, & L. E. Pont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health risk behavior*. New York, NY: Plenum Press.
- Lee, J., & Bell, N.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autonomy configurations: linkages with substance use and youth competencies. *Journal of Adolescence, 26*, 347-361.
- Markey, C. N., Ericksen, A. J., Markey, P. M., & Tinsley, B. J. (2001). Personality and family determinants of preadolescents' participation in health-compromising and health-promoting behaviors.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2*, 83-90.
- Mayseless, O., & Hai, I. (1998). Leaving-home transition in Israel: Changes in parents-adolescents relationships and adaptation to military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 589-609.

- Mears, D. P., Ploeger, M., & Warr, M. (1998).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delinquency: Peer influence and moral evaluations of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3), 251-266.
- Neemann, J., & Harter, S. (1986).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ollege students*.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Offer, D., Ostrove, E., & Howard, K. I. (1982). *The adolescent: A psychological self-portrait*. New York, NY: Basic Books.
- Scheier, L. M., Botvin, G. J., Dias, T., & Griffin, K. W. (1999). Social skills, competence, and drug refusal efficacy as predictors of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of Drug Education*, 29(3), 251-278.
- Shedler, J. & Block, J. (1990). Adolescent drug use and psychologic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5, 612-630.
- Small, S. A., Silverberg, S. B., & Kerns, D. (1993).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engaging in health-compromising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1), 73-87.
- Stice, E., & Barrera, M. (1995).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nd adolescents' substance use and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1, 322-334.
- Swadi, H. (1999). Individual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bstance us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55, 209-224.

(2004년 6월 29일 접수, 2004년 9월 10일 채택)